

세 제시문들은 특정한 생명체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다>, <나>는 각 제시문의 주체들의 특징과 죽음에 대한 인식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가>와 <다>에선 인간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있다. <가>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하고 애도한다. 또한, <다>의 사름들도 죽음을 인지하고 시체를 묘에 안착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반면에 <나>에 나타난 고릴라는 인간들과 달리 죽음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은 죽음에 대한 특정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반면 고릴라들은 죽음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한다. 이는 이카루스가 마체사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충격을 가하고 고릴라들이 마체사에게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행위에 잘 드러나있다.

한편으로 죽음을 인지하는 <가>와 <다>의 인간들도 죽음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죽음을 인간의 유한성을 발현하는 계기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는 매장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유발되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죽은자와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자와 함께 영원히 존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반면 <다>의 사람들은 죽음에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죽음을 단절을 유발하고 유한성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바라본다. <다>를 보면 사람들은 죽음은 부패하고 추악해지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유발하는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지양하고있다.

또한 <가>와 <다>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가 자연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가>의 사람들은 매장을 통해 죽은자를 영구히 존속시키기 때문에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다>의 사람들은 죽은자를 묘지로 보내면 죽은자는 최초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라한 묘에 죽은자를 묻는 대처 방식은 자연질서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Q1. 연대논술 처음써봐서 그러는데 이 문제 어려운문제인가요??

Q2. 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세요